

研究論文

전봉건 시의 고향 콤플렉스 극복과정

- 『北의 고향』을 중심으로 -

김성조*

I. 서론	IV. 결론
II. 실향의식의 시적배경	<참고문헌>
III. 현실인식과 욕망의 시적극복	<국문요약>

I. 서론

전봉건(1928~1988)은 시력 40여년 동안 6권의 시집¹⁾을 상재한 바 있다. 이 시집들은 대체로 특정 시기의 시적의도에 따라 색채를 달리하며 단계별 변모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모양상은 외적으로는 그의 다양한 실험적 시의식과 새로운 기법적 특징의 변화 혹은 발전단계를 보여준다. 한편, 내적으로는 그의 전쟁체험의 상처와 실향의식의 시적극복 과정이 형상화되고 있다.

전봉건은 같은 월남 시인인 김종삼·김광림과 함께 3인 연대시집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1957)를 시작으로, 1959년에는 첫시집 『사랑을 위한 되풀이』를 발간하게

* 현양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현대시 전공(poemksj@hanmail.net).

1) 전봉건은 1950년 『문예』지에 서정주의 추천으로 『願』(1월), 『四月』(3월)이, 김영랑의 추천으로 『祝禱』(5월)가 당선되어 등단한다. 그는 김종삼·김광림·전봉건 3인 연대시집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자유세계사, 1957)를 시작으로 『사랑을 위한 되풀이』(춘조사, 1959); 『춘향연가』(성문각, 1967); 『속의 바다』(문원사, 1970); 『피리』(문학예술사, 1979); 『북의 고향』(명지사, 1982); 『돌』(현대문학사, 1984)을 출간한다. 이 외에 7권의 선시집과 1권의 시론집, 2권의 산문집이 있다.

된다. 초기시에 해당하는 이 시들에는 주로 ‘파’와 ‘떡장 어둠’으로 상징되는 6·25체험의 비극성이 고발, 비판적 색채를 띠며 형상화되고 있다. 이 시기의 시들은 대체로 모더니즘적 특징을 강하게 드러내며 그의 독특한 시세계를 열어간다. 중기시에 해당하는 『춘향연가』와 『속의 바다』, 『피리』의 시기는 초기시의 바탕 위에서 언어실험과 언어상징이 보다 심화되고 있다. 이 시기의 시편들은 장시(長詩)의 시도와 에로스, 그리고 다양한 이미지의 변용 등 활달하고 탄력 있는 언어미학을 주도한다.

『북의 고향』은 전봉건의 마지막 시집인 『돌』과 함께 이른바 그의 후기시에 속하는 시집이다. 『북의 고향』의 시편들이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은 그 이전의 시들과 달리 개인적·주관적 감정표출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전의 시들이 주로 전쟁의 모순과 피의 상흔을 보편적 차원에서 형상화하고 있었다면, 『북의 고향』의 시편들은 보다 개인사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이는 전봉건 자신도 우려했듯, 개인적 공간체험을 주제로 한 ‘고향시’²⁾라는 한계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시들은 이승훈도 지적³⁾했듯, 단순히 고향 그리움을 표방한 ‘고향시’가 아니라, 분단 모순에 대한 시적 비판이라는 점에서 그 시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전봉건이 10여년 간 써온 고향 그리움의 시들을 이 한 권의 시집으로 한정해서 출간한 데는 나름의 고충과 결단이 작용했으리라 본다. 이는 ‘그렇다 해도 번번히 써내는 시가 고향시 일색이라는 것은 좀 지나친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그의 시집머리말을 통해서도 짐작된다. 이 시편들에는 일생 전봉건의 콤플렉스로 작용했던 ‘실향민’이라는 존재의식과 고향회귀에의 열망 그리고 시적극복 과정이 형상화되고 있다. 끊임없이 그의 자의식을 자극하며 그로 하여금 일생 방랑자의 길을 걷게 했던 이른바 ‘고향 콤플렉스’는 그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시적과제이기 때문이다.

2) 전봉건은 시집 『북의 고향』의 머리말에서 ‘고향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무튼 고향을 두고 지은 시는 그 시인의 극히 개인적인 체험이 바탕을 이루게 마련입니다. 해서 고향시는 한 시인의 사적인 뒷두리로 떨어질 가능성을 많이 지니게 되겠습니다. 물론 내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생각에도 없는 시를 쓴다는 것은 나이 50에 이른 시인이 할 것이 절대로 못됩니다.…나는 이제 나이 들어 고향 그리움의 시를 씀으로써 저 시 쓰기에 있어서의 매우 기본적인 요체 하나와 새삼스런 씨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3) 이승훈, 『6·25체험의 시적극복』, 《문학사상》, 1988. 8., 265쪽. 이승훈은 이 글에서 『북의 고향』의 시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시집 『북의 고향』에서 시인이 노래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북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다소 감상적인 세계일 것 같지만, 그러한 감상의 심층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분단 이데올로기에 대한 시적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전봉건 시세계의 핵심은 그가 6·25체험과 분단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떤 현실인식을 토대로 시적극복을 유도하는 지에 그 초점이 달려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그의 시적 상상력과 시의식의 내면적 흐름을 주도하는 전쟁체험 특히, 분단의식에 중심을 두고 그의 ‘고향 콤플렉스’의 시적 극복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의 내면의식에 깊이 뿌리내린 고향 콤플렉스와 그 극복과정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전봉건 시세계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그간 다소 논의가 미흡했던 시집 『북의 고향』을 연구함으로써, 이 시집이 함축하고 있는 시인의 시적의도와 의미를 해명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리라 본다.

II. 실향의식의 시적배경

시집 『북의 고향』에 실린 시편들의 발표연대를 보면, 60년대에 쓴 몇 편을 빼고 는 대부분 1970년대 초부터 1982년까지 쓴 시들이다. 이는 그 동안 단혀있던 남북 대화의 문이 열리게 된 즉, 70-80년대 ‘남북적십자회담’과 ‘이산가족찾기’ 운동이 벌어졌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있다. 전봉건이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고향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외부적 현실과 연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편들은 단순히 시인의 고향 그리움의 심회만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역사와 시대에 대한 비판적 현실인식을 내포하고 있다. 전봉건은 이러한 분단 모순의 실체를 ‘실향민’의 한사람으로서 보다 사실적으로 조명, 형상화하고 있다. 시집 『북의 고향』의 머리말에는 시인의 고향 그리움의 심회와 현실적 고뇌 그리고 이후 시적여정이 암시되어 있다.

찾아온 벗들과 얘기를 하다가도 문득 고향을 떠올립니다. 뿐만 아니라 고향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이 시작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의 꼬투리를 잡아 나는 어느덧 이북에 두고 온 고향에 잇대어 나만 아는 이야기를 꾸며내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 얘기를 주고받던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합니다. 또 이럴 때도 있습니다. 별다른 생각없이 앉았는 그럴때의 일입니다. 사람들은 온 그러한 때를 “명칭하지 않았을 때”라고 말합니다만 아무튼 이렇다 할 생각

없이 앉았는 그러한 때면 영락없이 내 “명칭”한 마음 한가운데 들어와서 자리하고 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30여년 전에 헤어진 고향집 대문 앞 넓은 마당끝에 선 커다란 화나무거나 거기서부터 한 300미터 떨어진 밭두렁길 끝난 곳에 흥건히 껴어 있는 맑은 샘물입니다.

— 시집 『북의 고향』의 머리말에서

전봉건은 1928년 평안남도 안주군 동면 명학리 10번지에서 부친 金亨淳과 어머니 崔成俊의 사이에 7형제 중 막내로 태어난다. 어린 시절에는 관리인 아버지를 따라 도내의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보내기도 한다. 그는 해방이 되던 1945년 숭인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듬해 1946년 여름 형과 함께 바다를 통해 월남한다. 월남 후 그는 잠시 경기도 양주군 갈매국민학교에서 교편을 잡기도 한다. 그러다 6·25가 발발하자 징집되어 참전했다가 중동부 전선에서 부상을 입고 제대를 하게 된다.

이 때 입은 부상은 ‘지난봄/중동부전선에서/총맞은/검붉은 탄흔 감싸쥐고/일그러진 채 단단히 굳어/움직일 줄 모르는/내 오른손’(「1954년의 4월은 왔다」) 등으로 형상화된다. 이후 그는 전생애에 걸쳐 전쟁체험의 시적 형상화와 상처의 극복에 주력하게 된다. 이는 6·25라는 민족상잔의 비극적 현실인식에서 일어나는 불안과 절망, 그리고 상실을 통한 비판적 현실인식이 그의 내면에 잠재(4)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시는 전봉건이 형과 함께 월남할 때의 상황과 이후 실향민으로서의 삶의 비극성이 형상화되고 있다.

淸川江에서 탄 배가
어두운 黃海를 숨어내려 仁川항에 닿을 내린
1946년 무더운 여름날 새벽
바로 그 날 새벽부터 십년을 하루같이
다시 십년을 하루같이 또 다시 십년을 하루같이
삼십년을 하루같이 오직 한 가지 생각.

— 「가서 보고 쉬고 죽어 그리고 다시 태어나리」 부분

전봉건이 월남할 때의 상황을 이처럼 구체적인 지명과 년도, 시간까지 상세히

4) 차환수, 「상실의식과 탐구정신: 전봉건의 6·25 연작시를 중심으로」, 《현대시학》, 1989. 6., 42쪽.

묘사하는 것은 실향민으로서의 현실인식의 명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그는 사선을 넘어 월남했지만, 정신적·현실적 터를 잡지 못하고 ‘십년을 하루같이, 이 십년을 하루같이, 삼십년을 하루같이’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을 하며 살게 된다. ‘오직 한 가지 생각’이란 곧 북의 고향을 이르는 말인데, 그가 ‘30년을 하루같이 오직 한 가지 생각’에만 집착하게 되는 것은, 그의 실향민으로서의 현실적 부재와 정신적 훼손의 일면을 암시하는 것이다.

‘어두운 황해’, ‘숨어내린 인천항’ 등에서 알 수 있듯, 그는 고향을 떠나움으로써 이미 당당한 주체로서의 삶을 상실한다. 이 시의 후반부에서 시인은 두 가지의 소망을 형상화하고 있다. 하나는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맨발로 고향 땅을 밟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죽어도 관속에 드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마치 날기라도 하는 것처럼 사지를 콧 피고 죽는 죽음’이 그것이다. ‘맨발’과 ‘사지를 콧 피고 죽는 죽음’이 암시하는 것은, 분단이 주는 인위적인 속박에서 벗어나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획득함을 의미한다.

피난민들의 월남할 때의 급박한 상황과 비극적인 현장은 ‘숨죽이고 숨죽이고 떠나오던 그날 밤에/형과 누이는 살아남게 하기 위하여/울음 우는 철없는 것의 목줄라 죽이었던’(「그렇습니다」) 등에서도 사실적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시적 묘사 속에는 모순되고 부조리한 전쟁과 분단 상황에 대한 시인의 비판적 현실인식이 숨어있다.

열시	흐릿하다
열한시	가물가물 보인다
열두시	하루가 다 하고
	하루가 시작되는 어둠은
	더욱 짙은 어둠이다
	그러나 그때 성큼 한 발자국
	내게로 다가서는 너를 본다
한시	마침내 너는 어둠을 밀어낸다
	산이여 강이여 하늘이여
두시	밭이여 언덕이여 샘이여
	왜나무여 대문이여 안뜰이여

	큰 부엌의 큰 솥이여 작은 솥이여
	마른 나무 활활 불타는 눈부신 아궁이여
세시	할아버님 할머님
	아버님 어머님이시여
네시	(네 번 치는 패종소리)
다섯시	머리 위에 떠오르는 희끄무레한 창
여섯시	다시 네가 없는 밝음이다

— 「여섯시」 전문

위 시의 시간적 배경은 밤 열시부터 새벽 여섯시까지로 설정되어 있다. 시인은 모든 것이 잠드는 어두운 밤에 오히려 그만의 공간과 의식세계를 만든다. 이러한 역설적 세계는 ‘눈을 감아야/보이는 길’(「봄이 오는 4월에」), ‘내 먼 북녘의 고향은/어둠속에/흰 밝음으로 있습니다’(「내 어둠」) 등에서도 드러난다.

어둠속에서 오히려 밝음의 세계를 찾으려는 시적의도는 시인이 가닿고자 하는 지향세계가 손닿을 수 없는 먼 곳에 있거나, 그러한 현실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암시한다. 전봉건이 가장 깊은 어둠이 시작되는 밤 열두시에 ‘너’와의 만남을 시도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여기서 ‘너’라는 대상은 시적 문맥상 ‘북의 고향’을 의미한다. ‘북의 고향’은 밤의 ‘어둠’ 속에서 비로소 성큼 내게로 다가와 그 본래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 모습은 ‘산, 강, 하늘’의 먼 풍경에서부터 ‘밭, 언덕, 샘’이 있는 일상적 공간, 그리고 ‘왜나무, 대문, 안뜰’의 순서로 다가온다.

시인의 시선은 먼 곳으로부터 점점 가까운 풍경으로 즉, 외부공간에서 내부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시인의 지향공간이 확대된 넓은 공간에서 축소된 좁은 공간으로 집중됨을 의미한다. 이 축소된 공간은 곧 전봉건의 옛 ‘고향집’으로 드러난다. 고향집은 그가 가장 안착하고 싶어하는 공간으로 모성지향적 의미를 담고 있다. 위 시에서 시인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부엌, 특히 아궁이로 압축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아궁이는 생명의 원천인 여성의 자궁을 의미한다. 그는 큰솥 작은솥의 아궁이에 마른나무를 활활 태움으로써 죽어있는 땃줄에 생명의 불길을 일으키고자 한다. 이는 다름 아닌 실향과 이산으로 인해 오랫동안 암흑에 쌓여있던 고향집과 상실한 뿌리를 재생하고자 하는 시적의도이다. 이러한 시도는 곧 할아버님과 할머

님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으로 이어지는 핏줄의 재생을 통해 실현된다. 그러나 어둠속에서 이루어진 고향과의 만남은 ‘여섯시’로 상징되는 밝음의 공간에서는 모두 사라진다. 이것이 이 시의 비극적인 의미축이고, 시인의 현실인식의 본질이다.

① 바라보기 30년/오직 바라만 보기 30년은/눈 짓물고/간 짓물고/쓸개 짓물고/
뉘이마저 짓물은/그러한 세월입니다

— 「오래도록」 부분

② 우리 집에는/아무도 알지 못하는/창문 하나가/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자식들이 알지 못하고/30년 가까이/함께 산 집사람도 알지를 못합니다

— 「창문」 부분

③ 아무도 보지 못한 그 사나이/땅바닥에서 한치쯤 떠서 고향길 가고 온 그
사나이/한반도처럼 허리 꺾인 사나이를 나는 보았다/나만이 본 그 사나이/
갈기갈기 헤어진 바지가랭이를 보았다

— 「한치쯤 떠서」 부분

위 세 편의 시를 내용별로 정리하면, 시인은 실향 후 30년 동안 한스러운 고향 그리움의 세월을 보내다가(①), 아무도 모르는 창문 하나를 만들기에 이른다(②). 그리고 급기야 땅바닥에서 한치쯤 떠서 고향길 가고 오는 사나이의 환상을 보게 된다(③). 이 세 편의 시에는 전봉건의 고향상실의 아픔이 상징적으로 함축되어 있다. 실향민으로 살아 온 그의 30년은 ‘눈, 간, 쓸개, 뉘’까지 짓물게 하는 고통의 시간이었다. 이 시간들은 그에게 신체 훼손 뿐 아니라, 정신적 훼손까지 안겨주는 상처의 시간들로 드러난다. 그가 아무도 몰래 북의 고향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 하나를 만든 것은 그의 이러한 정신적, 신체적 상처의 깊이를 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적대응은 어쩔 수 없이 현실적 단절을 내포하게 된다. ‘창문’은 개폐에 따라 소통과 단절을 공유하게 되는데, 시인은 스스로 창문 하나를 만들으로써 세상과의 소통과 단절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나만이 만질 수가 있고’, ‘나만이 여닫을 수가 있’는 이 창문은 ‘어두운 새벽, 어두운 밤중’ 혹은 ‘봄이 오는 한식날, 가을 깊은 추석날’에만 열리는 제한적, 폐쇄적 의미를 담고 있다.

‘바라보기 30년’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창문’ 하나를 만들기에 이어 시인은 또 다른 시적대응을 모색한다. 이는 현실 속에서는 갈 수 없는 고향을 상상을 통해

가고자 하는 것이다. ‘아무도 보지 못한’, ‘땅바닥에서 한치쯤 떠서’ 등은 이 시의 시적공간이 상상세계임을 암시한다. ‘한반도처럼 허리 꺾인 사나이’, ‘갈기갈기 헤어진 바지가랭이’는 분단비극과 철조망의 폭력적인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위 세 편의 시는 전쟁과 분단이 남긴 씻을 수 없는 실향민들의 상처와 간절한 고향 그리움의 심회가 시인의 눈을 통해 함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6·25전쟁은 전봉건의 일생을 가름하는 결정적인 체험이며, 이후 시의식의 밑바탕을 이루게 된다.⁵⁾ 그는 민족의 분열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비극의 실체를 그의 내면세계에 통합적으로 지니고 있으며⁶⁾, 이는 실향의식의 시적 형상화를 통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전봉건의 실향의식의 시적배경은 살펴본 바와 같이 6·25전쟁과 분단에 있다. 그의 실향의식이 가장 강렬하게 함축하고 있는 것은 뿌리 의식이다. 그에게 고향상실은 곧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뿌리를 상실하는 것이며, 뿌리상실은 다시 정신의 상실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 그에게 고향상실은 근원적 존재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가 극복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여기서 전봉건의 고향회귀에 대한 필연성과 시적극복의 의미가 부여된다.

III. 현실인식과 욕망의 시적극복

1. 꿈과 현실의 재인식

전봉건은 1988년 6월 13일 60세의 일기로 타계하기까지 일생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었다. 이 ‘찾아헤매’의 과정은 정신적으로는 그의 오랜 시적극복의 여정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는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실향민의 삶을 반영하기도 한다. 그는 1952년 대구 피난민 수용소에서 서울로 올라온 뒤 출판사 希望社에 취직을 함으로써 처음으로 출판계에 몸담게 된다. 이후 출판사나 잡지사 등 여러 곳에 잠깐씩 머물기도 했지만 일생 고정된 직장을 갖지 못했다. 그가 유일하게 타계하기까지 열정을 바쳐 몸담았던 월간 시 전문지 《현대시학》은 그에게 문학적 열정

5) 박민영, 「6·25와 北의 고향, 상실의 시적 극복」, 《현대시학》, 1993. 6., 202쪽.

6) 신동욱, 「전봉건론」, 《현대문학》, 1980. 9., 235쪽.

과 또 문학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심어주었는지 모르지만, 생계를 위한 직장이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는 고향을 상실함으로써 정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영원한 방랑자가 되어 버렸는지 모른다.

전봉건이 끊임없이 극복의 문제에 천착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의 전기적 삶과 연계성을 가진다. 그의 극복의 문제는 단순히 현실적 문제를 넘어 보다 근원적인 문제 즉, 상실한 존재회복과 자기구원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전봉건이 현실인식을 통해 자각하는 자기존재는 전쟁체험을 한 비극적 존재이며, 북에 고향을 둔 실향민이며, 고향회복을 열망하는 근원적 존재이다. 전봉건이 이러한 자기존재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가 꿈, 환상, 상상세계를 통해 시적극복을 유도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의 시형상화 과정은 대체로 명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비극적 체험의 재현, 체험에 대한 비판과 수용 그리고 시적 극복이라는 구도를 고수하고 있다. 『북의 고향』의 시편들도 대체로 이러한 시적구도를 보이며 극복의 길을 모색하게 된다.

내 고향은 이복이지만
꿈속엔 길이 있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 「찬 바람」 부분

아아 이십육년
빠져린 꿈에서만 피시는 어머니이시여

— 「빠져린 꿈에서만」 부분

꿈은 마음의 영원한 근원이며 내부세계와 외부세계의 이음새이다.⁷⁾ 꿈은 현실적 한계를 초월하는 환상공간으로, 현실에서는 이루지 못할 어떤 것을 ‘꿈으로도’ 이루겠다는 욕망에 의해 도입된다. 전봉건은 북의 고향을 바라보기 위해 아무도 모르는 ‘창문’ 하나를 만들었듯, 다시 ‘꿈’을 통해 ‘꿈속의 길’이라는 하나의 초월적 공간을 만든다. ‘꿈길’은 시인이 북의 고향을 가기 위해 만든 매개물이다. 이는 ‘꿈속엔 길이 있어 갈 수가 있습니다’, ‘빠져린 꿈에서만 피시는 어머니이시여’ 등에서 그의 시적의도가 구체화된다.

7) 장 피에르 리샤르/윤영애(역), 『시와 깊이』(민음사, 1984), 206쪽.

전봉건에게 고향회귀는 본래적 자신을 찾는 것, 훼손되지 않은 맑은 영혼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꿈을 매개로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시적의도에는 그 꿈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암시한다.

나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꿈마다 찾아가는 고향집은 썰렁하니 비어서 어두컴컴하였습니다. 그래도 날마다 꾸는 꿈마다 나는 이복의 고향집을 찾아갔습니다./그러한 어느 날 밤의 꿈이었습니다./나는 드디어 아버님과 어머니 또 두 형님을 뵈 수가 있었습니다. 죽어서 재가 되었던 어머니와 두 형님 그리고 죽어서 흙이 되었던 아버님은 고향으로 돌아와 다시 사람으로 현신하여 함께 살 고들 계셨습니다./나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고향집은 방마다 흰한 빛이 가득하였습니다./고향집은 구석마다 흰한 빛이 가득하였습니다.

— 「꿈길」 부분

꿈이란 현실을 반영하는 가장 강력한 매개물이다. 그것이 꿈꾼 자가 간절하게 소망하는 어떤 것이든, 그 반대의 것이든 현실속의 여러 이미지들이 무의식의 형태로 투영되어 나타난다. 전봉건의 경우 전자의 의미 즉, 고향 그리움의 간절한 소망이 꿈이라는 매개물을 통해 실현된다. 이는 “꿈은 하나의 소망충족⁸⁾이라는 프로이트의 말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 전봉건이 꿈이라는 매개를 통해 고향회귀를 유도하는 것도 이러한 꿈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위 시에서 전봉건이 ‘꿈마다 찾아가는 고향집은 썰렁하니 비어서 어두컴컴’한 공간으로 드러난다. 썰렁하게 비고 어두컴컴한 고향집의 풍경은 가족들의 부재를 암시한다. 고향집에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어야 할 이 가족들은 이남에서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한 것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그의 부모님과 두 형님은 이미 죽어 ‘흙’이 되었거나 ‘재’가 된 죽음 이미지로 드러난다. 이러한 죽음 이미지는 ‘어머니의 재와 큰 형님의 재는 한강물에, 작은 형님의 재는 부산 바닷물

8) S. 프로이트/김기태(옮김), 『꿈의 해석』(선영사, 2005), 143쪽. 프로이트는 이 책의 제3장 <꿈은 소망 충족>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꿈은 무의미한 것도 부조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의 수면 중에 일련의 표상은 잠들어 있는데, 다른 일부가 깨기 시작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꿈은 완전한 심적 현상이며, 어떠한 것의 소망 충족이다. 꿈은 우리가 각성시의 심적 행위의 관련 속에 넣을 수 있는 것이므로 매우 복잡한 정신활동에 의해 형성된다.”

에 뿌렸읍니다'와, '아버님은 이복으로 가는 길목 산중턱에 무덤을 써서 모셨읍니다' 등에서 극대화된다.

그러나 어느날 밤 꿈에 시인은 이들이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와 현신해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들의 현신은 그동안 썰렁하니 비어서 어두컴컴하던 고향집을 '방마다 흰한 빛이 가득'한 공간으로 살아나게 한다. 시인은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져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던 가족들을 다시 현신시킴으로써 죽어 있던 고향집을 밝고 건강한 생명의 공간으로 부활시킨다. 이러한 생명 이미지는 전봉건의 의식, 무의식적 소망충족을 의미한다. 그는 부모님과 두 형님을 현신시키고 또 죽음 이미지로 드러나던 고향집을 빛이 가득한 집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상실한 자기존재 회복을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그의 시적 극복세계는 과거의 단란했던 어느 한 순간의 시적재현에 놓여 있다. 그의 현실 부재의식과 고향 콤플렉스는 잃어버린 고향의 회복 즉, 비어있던 고향집의 재생과 죽었던 가족들의 현신을 통해 극복된다. '어둠/흰한 빛', '죽음/현신' 등 하강/상승의 대립적 구도는 이러한 전봉건의 시적 극복과정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따금 꿈길에 가는 고향집 가을 햇살은 등어리에 따사롭습니다. 안방에서 사랑채로 혹은 대문으로 너넉한 걸음걸이 옮기시는 아버님과 어머님께서는 들국화의 향내가 납니다. 그런데 모를 것은 아무리 보고 다시 보아도 아버님과 어머님의 모습이 삼십 안팎으로 밖에는 안 보이는 사실입니다. 쫓겨 헤매인 이남땅 찬 비바람에 시달려 모질게 깊이 아프게 삭은 칠십의 고개에서 팔 다리 오그린 채 눈 감으셨던 아버님과 어머님.

— 「죽어서야」 부분

전봉건이 어둠과 썰렁하게 비어있던 고향집을 방마다 흰한 빛으로 가득 채우고, 그 곳에 죽은 부모님과 형님들을 현신시키기까지는 오랜 시적극복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이러한 시적노력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고향집의 풍경을 과거의 행복했던 어느 한 순간으로 돌려놓는다. 아무리 보아도 '삼십 안팎으로 밖에 안 보이는 아버님과 어머님'의 모습은 시인의 유년을 유추하게 한다. 유년의 공간은 전봉건이 이르고자 하는 가장 근원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유년의 공간이야말로

로 훼손된 신체와 정신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이상적 공간으로 상정된다. 그가 꿈길을 통해 고향→고향집→가족들의 현신→젊은 부모님을 차례로 형상화하며 유년의 공간에 이르고자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위 시에서 유년의 고향집은 '등어리에 따사로운 가을 햇살', 아버님과 어머님의 '넉넉한 걸음걸이', '들국화 향내'가 나는 부모님의 모습 등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풍경은 죽음과 대립되는 빛의 세계 즉, 평화로움과 자유로움 그리고 생명의 세계를 표방한다. 그러나 들국화 향내가 나는 젊은 부모님은 복의 고향과 꿈속 혹은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만 그 존재가 감지된다. 여기서 전봉건의 지향세계의 비극성이 드러난다. 또한 들국화 향내가 나는 젊은 부모님과 이남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간 현실속의 부모님의 모습이 대비되면서 분단 이데올로기의 비극성이 극대화된다. 이는 전봉건의 고향시편들이 내재하고 있는 시적비판의 일면이라 할 수 있다.

이승훈은 전봉건의 시선집 『전봉건 시선』(탐구당, 1985)의 서평에서, 전봉건이 빛 이미지로 상징되는 '연분홍빛의 세계'(「아침 진달래」)와 만나게 되는 것은, 30년이 넘게 지속되어온 그의 시적 모험이 성취한 가장 눈물겨운 부분이자, 그의 시적 승리에 해당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여기서 '연분홍빛의 세계'란 다름 아닌 그의 시적 극복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연분홍빛 세계'와의 만남에 이어 『복의 고향』에서의 '꿈길'이라는 새 초월적 극복공간의 창조는 전봉건의 또 다른 시적탐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꿈의 구조를 통한 과거지향적 상상의 미학"⁹⁾을 극복의 형태로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정화와 통합의 세계

전봉건이 '꿈길'을 통해서나마 잃어버린 고향을 회복하고 정신적 극복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치열한 시의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의 또 다른 시적극복을 보여주는 정화의 세계는 '꿈길'의 연장선상에서 그 시적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정화의 세계는 전봉건을 결빙시키던 현실적·정신적 단절과 고독 그리고 어둠과 절망을 벗어나 새로운 인식의 세계로 접어들고자 하는 시적의도이기 때문

9) 이승훈, 「전봉건의 상처」, 《현대문학》, 1986. 6., 403쪽.

10) 하현식, 「말과 孤節」, 《현대시학》, 1988. 6., 70쪽.

이다. 그가 의도하는 새로운 인식의 세계란 ‘혼자’라는 단절된 세계에서 ‘우리’라는 통합의 세계로 나아감을 의미한다. 정화 이후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그의 마지막 시집인 『돌』의 존재초월로 가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다.

먼저, 이 절에서 다루게 될 정화의 세계는 ‘눈’과 ‘눈물’ 이미지를 통해 그 시적 의도를 찾아볼 수 있다. 전봉건 시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다양한 이미지의 시적변용에 있다. 전봉건은 시론집 『시를 찾아서』¹¹⁾에서 “이미지는 강력한 희망, 탐욕스런 생명력이 넘쳐나는 꿈”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뭔가 나타나 보이고 싶은 것, 떠올리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생생하게 해주는 것이 이미지인 것 같다”¹²⁾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봉건 시에서의 이미지들은 주로 대립적 위치에서 상승지향 구조를 띠고 있다. 상승 이미지들은 대체로 꽃, 불, 나무, 소리, 새, 피, 돌 등의 이미지를 통해 드러나는데, 이는 곧 전봉건의 극복세계인 생명성을 상징한다. ‘눈’과 ‘눈물’은 하강 이미지이지만, 물의 속성상 다시 수증기가 되어 상승한다는 점에서 상승 이미지를 내포한다. 무엇보다 이 절에 등장하는 ‘눈’과 ‘눈물’은 정화 이미지로서의 상승의 의미를 지닌다. ‘눈’과 ‘눈물’은 전봉건의 고향회상 장면에서 떠오르는 고향 이미지로, 오래 응어리진 상처를 덮어주고 풀어주는 상처치유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① 가슴에 묻어 온/그 많은 이야기/한뼉 남짓한 가슴에 묻어 온 이야기/크고
높고 깊은 많은 이야기/다 하면서 노래처럼 다 하면서/함박눈으로 내립니다
— 「함박눈」 부분

② 윗풍 찬 방에/움츠리고 앉은 지나간 날들의 생각/낡은 사진첩 들치는데/돌
아가지 못하는 길/면 고향길에/함박눈이더군요
— 「저무는 날의」 부분

전봉건 시에 드러나는 눈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고향의 강·산·들처럼 시인의 무의식속에 각인된 고향 이미지이다. 눈은 현재와 과거를 이어주는 기억의 끈인 동시에 고향회상의 통로이다. 시인의 기억 속에서 재현되는 고향의 눈은 대부분 ‘함박눈’ 이미지로 드러난다. 이 함박눈은 시인으로 하여금 ‘눈 많은/이북/고

향꿈’(「발자국」)을 꾸게 하는 매개물인 동시에, ‘가슴에 묻어 온 많은 이야기’(①)들을 풀어주는 정화의 역할을 한다.

시인에게 북의 고향은 이미 ‘돌아가지 못하는 길/면 고향길’(②)이 되어버렸지만, ‘낡은 사진첩’ 속에는 아직도 ‘함박눈’의 풍경으로 살아있다. ‘낡은 사진첩’은 시인의 고향 떠남이 오래 되었음을 말해준다. 그 시간들은 ‘위풍 찬 방에/움츠리고 앉’아서 보낸 상처의 시간들이다. 그러나 눈의 정화력은 ‘못다 본 눈/다 보는 눈, 못다 푼 한/다 푸는 한, 못다 준 정/다 주는 정, 못다 한 말/다 하는 말, 못다 꾸는 꿈/다 꾸는 꿈’(「내리라 가득하라」)이 되어 실황의 상처를 정화시킨다.

전봉건의 ‘눈’은 오랜 마음의 결핍을 채워주고 응결된 상처를 풀어주는 따뜻한 정서를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풀림’의 세계가 바로 그의 상처를 정화시키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꿈길’이 상상의 세계라면 ‘눈’은 현실세계이고, 꿈이 어둠을 동반한다면 눈은 오히려 그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 역할을 한다. 또한 꿈속의 고향길이 전봉건 혼자만의 아픈 행위였다면, 눈길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정서에 가닿아 있다. 전봉건이 눈을 통해 따뜻한 인간애를 회복하게 되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 눈은 다시 눈물로 녹아내리면서 상처를 정화시킨다.

눈물은 만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만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마음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눈물 날 때 마음이 척척하니 젖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먼 고향은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지지 못하는 마음이나 먼 고향을// 눈물은 이따금씩 만질 수가 있습니다// 봄 어느 날 가을 어느 날// 내 먼 고향은// 척척하니 젖은 마음안에서 다시 척척하니 젖어 있습니다// 그런 날이면 늘 비가 내려서// 젖은 진달래나 단풍이 흐린 천지간에 번지는// 불꽃입니다

— 「눈물」 전문

위 시에서 시인은 눈물을 매개로 고향을 만난다. 시의 구조는 ‘눈물→만질 수가 있다’, ‘마음→만질 수가 없다’, ‘눈물→마음을 만질 수 있다’, ‘면 고향→마음속에 있다’, ‘눈물→마음을 만질 수 있다’로 되어 있다. 결국 ‘눈물’은 마음을 만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고향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눈물’과 ‘면 고향’의

11) 전봉건 시론집, 『시를 찾아서』(청운 출판사, 1961), 148쪽.

12) 전봉건·박정만 대담, 「나의 文學, 나의 詩作法」, 《현대문학》, 1983. 4., 278쪽.

만남은 시인의 간절한 고향 그리움의 시적 표상이다. 시인의 고향 그리움은 ‘봄 어느 날 가을 어느 날’이 되면 더욱 더 간절해진다. 여기서 ‘봄 어느 날’과 ‘가을 어느 날’은 전봉건의 시편들을 통해 유추해 볼 때, 한식날과 추석날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다. 시인은 한식날과 추석날이 되어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슬픔을 ‘젖은 진달래’와 ‘젖은 단풍’에 비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를 다시 ‘불꽃’으로 피워 올림으로써 하강의 심상에서 상승의 심상 즉, 시적승화를 유도한다. ‘불꽃’은 눈물이 지나간 자리에 피어난 생명의 꽃이다. 전봉건의 극복세계가 대개 그렇듯 위 시 역시 ‘눈물/불꽃’의 대립구조를 통해 시적극복을 획득한다.

전봉건의 ‘눈물’은 시 「새길」에서는 다시 ‘한 핏줄/서로 그리는/그리움의 눈물’로 형상화된다. 이 ‘눈물’은 ‘한 핏줄’ 서로 그리는 그리움의 눈물이기도 하고, 한 핏줄 서로 부르며 찾는 피의 눈물이기도 하다. 전봉건에게 ‘눈물’은 이제 정화의 의미 뿐 아니라 화해와 수용의 의미까지 내포한다. 그는 ‘새길’을 내기 위해서는 전쟁이나 폭력적 힘이 아니라, ‘눈물’로 열어야 한다는 인식을 보인다. 그의 시적 극복의 범주는 이제 ‘고향, 고향집, 가족’의 테두리에서 ‘한 핏줄’로 상징되는 민족적 의미로 확대되고 있다. 전봉건의 눈물은 이제 전봉건 개인의 눈물인면서 월남인 전체의 눈물이기도 하고, 한국인의 눈물로 확장된다. 이러한 전봉건의 ‘눈물’이 의도하는 내적 의미는 화해와 수용을 바탕으로 한 ‘한핏줄’의 반성과 염원이다.

① 오오 처음으로 꽃잎에서/꽃잎으로 이는 바람결인데/.../어저 사랑을 우리들 사랑을/시작하지 않으리

— 「처음으로 열리는」 부분

② 오늘/아침에/보는 산 개울의 물은/조금은 더/맑아 보입니다...// 그러나/눈 덮인 길/저/얼어붙은 길/북으로 가는/저 길을// 정말로 어제보다는/조금은 더 넓은 것이게 하는 것이/오늘 아침/새 아침의/우리들 간절한/소망입니다

— 「길」 부분

‘눈’과 ‘눈물’을 통한 전봉건의 정화의 세계는 이제 ‘나’ 혹은 ‘혼자’라는 단절된 세계에서 ‘우리’라는 통합적 세계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이는 곧 이제까지 적대적, 폐쇄적 위치에 있던 세상과의 내적 화해를 암시한다. 이러한 전환의 바탕에는 ‘사랑’이라는 시적의미가 매개되어 있다. ① ‘사랑’은 ‘눈물’이 보여준 정화의 세계

그리고 화해와 수용의 세계에서 좀 더 심화된 세계와 의미층을 부여한다. 이러한 ‘사랑’은 ‘꽃잎에서 꽃잎으로 이는 바람결’에서 시작되어 ‘하늘속 눈부시게 밝히며/솟는 큰 산의 사랑’으로 승화하기 때문이다. 이 시에 형상화되고 있는 ‘처음’과 ‘시작’이라는 시적표현은 ‘사랑’을 매개로 한 새로운 세계 즉, 화해와 열림의 세계에 대한 시인의 희망과 기대가 암시되어 있다.

전봉건은 ‘북으로 가는 길’도 이제 혼자만의 길이 아니라, ‘우리들 간절한 소망’ ②이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이제까지 ‘북의 고향’은 전봉건 개인이 극복해야 할 시적대상으로 형상화되고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 극복해야 할 민족적·현실적 과제로 대두된다. 그리고 이러한 극복에는 전쟁 등 폭력적 힘의 원리가 아니라, 사랑과 화해의 정서가 매개되어 있다. ‘오늘/아침에/보는 산 개울의 물은/조금은 더/맑아 보입니다’에서도 시인의 이러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맑은 산개울의 물’은 정화되고 순화된 자아와의 만남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아와의 만남의 세계가 전봉건이 의도하는 정화와 통합의 세계이고, 그가 중국에 이르러자 하는 시적 극복의 세계이다.

전봉건의 40여 년의 시작과정은 내적, 외적으로 상실한 고향과 그 고향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향회귀는 곧 상실한 자기존재를 회복하는 길이며 진정한 자아와의 만남을 의미한다. 전봉건에게 고향/자기존재는 동일시되고 따라서 고향회귀는 곧 그의 오랜 고향 콤플렉스의 시적극복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전봉건의 시의식은 그의 시세계의 결집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시집 『돌』의 존재탐구, 예술적 성취, 존재초월의 세계로 전환된다.

IV. 결론

전봉건은 초기 서정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모더니즘적 특성을 바탕으로 그의 독특한 시세계를 열어왔다. 그의 실험적 시의식에 바탕한 미학적 시세계는 그를 50년대 대표적 모더니즘 시인으로, 또 시사적으로도 큰 족적을 남긴 시인으로 평가받게 한다. 시집 『북의 고향』의 시편들은 초기, 중기시에서 보이던 전봉건의 시적 특성과는 다소 거리를 보인다. 이는 개인적·주관적 감정 유입이 많은 ‘고향시’의 특색이 주는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봉건의 ‘고향시’는 단순히 전쟁체험과 실향의식의 객관적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형상화를 통해 미학적인 극복형태를 띠고 있다는 데 그의 문학적 가치가 놓여있다. 또한 이 시편들이 내포하는 시적의도가 역사와 현실, 분단 모순에 대한 고발과 비판의식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시적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전봉건의 전 시세계를 지배하는 시적 상상력은 전쟁체험과 분단의식이다. 무엇보다 그의 시의식을 사로잡은 것은 분단으로 인한 고향상실에 놓여있다. 전봉건에게 6·25전쟁은 곧 고향상실로 연계되고 실향의 상처는 일생 씻을 수 없는 그의 내적 콤플렉스로 자리잡는다. 그에게 주어진 ‘실향민’이라는 상흔은 그가 지고 가야 할 가장 큰 현실적 극복과제이면서 이후 그의 시적여정을 암시하는 중심 기제가 된다.

전봉건이 고향회귀를 통해 그의 내면의식의 중심을 흐르는 ‘고향 콤플렉스’의 극복을 유도하는 것은, 근원적 존재로서의 자기존재 회복의지에서 비롯된다. 고향 회귀는 곧 전봉건의 상실한 존재회복을 의미하고,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신적 자유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꿈길’은 갈 수 없는 북의 고향을 가기 위해 만든 매개물로서, 시인의 고향회귀에의 열망을 실현시켜 준다. ‘눈’과 ‘눈물’은 상처치유와 자기정화 이미지로 등장한다. ‘꿈길’이나 ‘눈’ 그리고 ‘눈물’ 이미지를 통해 변주되는 전봉건의 극복의지는 가장 적극적인 극복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극복과정 이후 그의 통합적 인식의 세계는 그의 오랜 시적 성과 혹은 시적승화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전봉건의 『북의 고향』의 시편들은 그 동안 마음껏 고향 그리움의 시를 쓸 수 없었던 현실적 제약과, 개인적 체험인 ‘고향시’를 쓰는 것에 대한 시인으로서의 시적 고민이 함께 녹아있다. 한편, 밖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시인의 내면의식의 저변 즉, 콤플렉스적 사안들을 시적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시적의도와 의미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이는 응결된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풀어내냄으로써 상처치유의 길을 모색하려는 시인의 시적의도로서, 그의 시세계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는 중요한 시적단계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S. 프로이트/김기태(옮김), 『꿈의 해석』. 서울: 선영사, 2005.
 박민영, 「6·25와 북의 고향, 상실의 시적 극복」. 《현대시학》 1993, 6.
 신동욱, 「전봉건론」. 《현대문학》 1980, 9.
 이승훈, 「6·25체험의 시적극복」. 《문학사상》 1988, 8.
 이승훈, 「전봉건의 상처」. 《현대문학》 1986, 6.
 장 피에르 리샤르/윤영애(역), 『시와 깊이』. 서울: 민음사, 1984.
 전봉건, 『돌』. 서울: 현대문학사, 1984.
 전봉건, 『북의 고향』. 서울: 명지사, 1982.
 전봉건, 『사랑을 위한 되풀이』. 서울: 춘조사, 1959.
 전봉건, 『속의 바다』. 서울: 문원사, 1970.
 전봉건, 『시를 찾아서』. 서울: 청운출판사, 1961.
 전봉건, 『춘향연가』. 서울: 성문각, 1967.
 전봉건, 『피리』. 서울: 문학예술사, 1979.
 전봉건·박정만, 「나의 文學, 나의 詩作法」. 《현대문학》 1983, 4.
 차현수, 「상실의식과 탐구정신: 전봉건의 6·25연작시를 중심으로」. 《현대시학》, 1989, 6.
 하현식, 「말과 孤節」. 《현대시학》 1988, 6.

국문 요약

이 논문은 전봉건의 후기시 『북의 고향』을 중심으로 그의 고향 그리움의 심화와 시의식에 내재한 고향 콤플렉스의 시적 극복과정을 살펴본다. 전봉건은 50년대 대표적 모더니즘 시인으로, 그의 실험적 시의식과 그에 따른 문학적 성취는 시사적으로도 큰 족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력 40여년 동안 지속된 그의 시적탐구는 단계별 시적변화와 독특한 미학적 시세계를 여는 초석이 된다.

이러한 전봉건의 전 시세계를 지배하는 시적 상상력은 6·25체험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초기·중기시가 주로 ‘피’로 상징되는 전쟁의 비극성을 형상화하고 있다면, 『북의 고향』의 시편들은 분단 모순에 대한 비판과 실향

에 토대를 두고 있다. 실향의식은 전봉건의 전 시세계에 걸쳐 그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시적 극복대상으로 내면화되어 있다. 전봉건에게 있어 6·25의 상처는 결국 실향의 상처로 집약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꿈길’을 통한 고향회귀와 ‘눈’과 ‘눈물’ 이미지를 통한 자기정화의 세계는 가장 적극적인 시적극복을 반영한다. 고향회귀는 곧 전봉건의 정신적 극복세계를 의미하며, 자기정화는 새로운 인식의 세계 즉, ‘혼자’에서 ‘우리’라는 통합의 세계로 유도하기 때문이다. 시집 『북의 고향』에 나타난 고향 콤플렉스 극복과정은 전봉건 시세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그의 마지막 시집 『돌』의 존재초월로 가는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된다.

● 투고일 : 2008. 4. 10.

● 심사완료일 : 2008. 5. 29.

● 주제어(keyword) : 전쟁체험(War experience), 분단(division), 고향상실(loss of hometown)
고향 콤플렉스(hometown complex), 극복(overcome).